역사 인물 설화 사상 속살풀이

김봉렬교수 '시대를 담는 그릇' 고건축 재조명

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건축. 불교건축은 불국사가 공간적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심오한 불법속에 문화 예술 그리고 건축가의 정신이 녹아 있는 불국토이다. 고건축의 창작배경과 건축가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건축의 속살까지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우리 건축을 새로운 시각에서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의 하나로 펴낸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의 〈시대를 담는 그릇〉이 바로 그것. '세계적 유산의 또다른 이야기-불국사와 석불사(석굴암)', '문화적 전환기의 건축-안압지와 마곡사', '장인정신과 공예적 전통-전북의 작은 사찰들' 등 고건축을 '문화를 담는 그릇'으로서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를 담는 그릇〉은 건축물별로 주제를 선정해 한국전통건축의 전체 맥락과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풀이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실측도면, 사진, 해설과 주변 문화유산들도 곁들여 한국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우리 건축 되찾기 일환으로 준비됐다는 점에서 읽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건축양식에서 역사의 향기가 느껴진다.

〈시대를 담는 그릇〉은 고건축 답사와 감상에만 치우치지 않는다. 석굴암이 왜 최상의 하이테크 건축인지, 마곡사가 보여주는 전환기적 건축의 양식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를위해 저자는 창작 배경과 개념 뿐만 아니라 항목마다 설화를 곁들였고, 건축과 관련한 인물과 인물이 엮은 역사와 사상체계까지 일목요연하게 서술했다. 또한 이 책을 읽다보면 현대건축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에 근본적인 대안을 제기하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도 엿보인다. 이처럼 〈시대를 담는 그릇〉은 건축을 주인공으로 하는 대하소설이며 문화총서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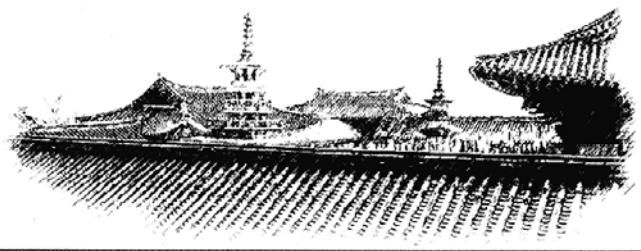
> **불국사-공간적 대장경**
> **마곡사-전환기적 양식**
> **만든사람 생각 알면**
> **건축의 본질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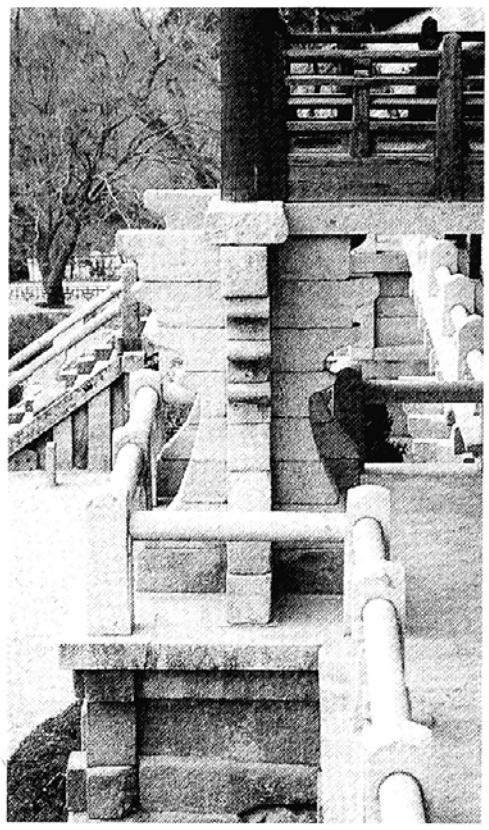
김봉렬교수는 다양한 용도와 목적의 건축들 속에 담겨져 있는 생활과 생각들을 담은 〈앎과 삶의 공간〉, 터잡기부터 세부기법까지, 한국건축의 이론적 내용들을 수록한 〈이땅에 새겨진 정신〉을 연이어 출간할 계획이다.

김봉렬교수는 "한국건축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보기 위해 집필했다"며 "건축인 뿐만 아니라 문화인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간의 의미를 밝혔다.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건축을 총망라한 한국건축의 재발견 시리즈는 건축인 뿐만 아니라 우리문화에 관심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권해 볼 만하다. 〈시대를 담는 그릇〉을 펼쳐드는 독자들은 지혜로운 이상세계를 그린 선조들의 깊고 넓은 문화적 안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값 1만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불국사 범종루 아래 수미산 기둥. 목조건물의 공포를 돌로 표현한 고도의 추상형태.

해외신간

부처님

2천5백여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부처님(Buddha:The Living Way)은 이같은 궁금을 풀어줄 수 있는 책이다. 저자 트리밍햄이 각국의 대표적인 사원에서 봉행되는 불교의식과 스님들의 수행을 낱낱이 소개하고 있다.

Random House 刊. ISBN 06-79457844

불교와 생태학

대승·상좌부 불교의 환경관에서 현대의 에코부디즘까지의 불교 환경론을 소개한 〈불교와 생태학(Buddhism and Ecology:The Interconnection of Dharma and Deeds)〉이 발간됐다. 미국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소에서 96년부터 3년간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 19편이 수록됐다. Harvard University 刊. ISBN 0945-454139

일본중세의 선종과 사회

일본 선종을 집중 고찰한 〈일본중세의 선종과 사회〉가 나왔다.

구(舊) 불교와의 대립양상을 밝히며 기존의 선종상을 재검토하고 있다. 선종과 염불, 선종의 지역적 전개 등의 사회적 의미를 수록했다. 吉川弘文館 刊 / 하라다 마사도시(原田正俊) 著.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읽은불서 · 새책 한권씩 절로 보내자

절마다 도서실(관)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불·기도·법회를 마치고 도서실에 들어가 불서를 읽거나 궁금했던 교리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불서를 대여받아 집에 가서 가족이 함께 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나온 불서 한권씩을 다니는 절에 법공양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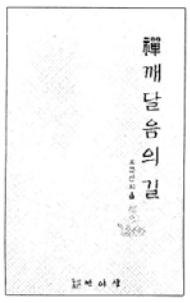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행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드는 불사는 새 천년을 준비하는 주춧돌 놓기입니다.

△동참안내: ①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②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 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02)737-8881 출판부장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협찬: 교계 출판사(사찰도서실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선 깨달음의 길 | 고산스님 지음

조사들 일화통해 살핀 선수행



선(禪)은 단순히 마음을 가라앉힘으로써 삶의 여유를 찾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청정한 본마음을 깨달음으로써 부처를 이루고자 하는 소중한 수행방법이다. 불자라면 이점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펴낸 〈선 깨달음의 길〉은 선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조사들의 일화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선사들의 기행(奇行)에 대한 바르고 쉬운 해석서가 함께 있어 이해의 폭을 넓게 제시하고 있다. 〈반야샘, 8천원〉

화제의 책

불교성서 | 홍순철 지음

부처님의 삶 재조명한 입문서

초심자나 불교를 처음부터 다시 알고자 원하는 불자들을 위한 불교성전이 나왔다.

〈불교성서〉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부처님의 역사적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오늘을 사는 모든 이에게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불교경전이 한역으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역경전의 굴레를 벗어나 고유명사나 불교의 전문용어 등을 원어인 범어로 표기하여 불교 술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밝히고 있다. 〈관음, 3만원〉

'화엄경 현수기' '금강수보살대교왕경' 동국대 역경원, 한글대장경 2권 출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화엄경현수기〉 〈금강수보살대교왕경〉 등 2권의 한글대장경이 나왔다.

〈화엄경현수기〉의 원제목은 〈대방광불화엄경수현분제통지방궤〉. 불타발타라가 한역한 60권으로 된 〈대방광불 화엄경〉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화엄종의 교리를 체계화 한 것. 첫권의 전반부분에서는 〈화엄경〉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다음부터는 품별로 해석하고 있다. 역경위원 장순용씨가 번역을 했다.

〈금강수보살대교왕경〉은 부처님께서 금강수보살에게 설하신 일체 귀신을 항복받는 밀교의 경이란 뜻이다. 이 경은 3권으로 돼 있으며 상권에서는 경을 설하게 된 인연을, 중권에는 기도하는 절차와 귀신을 부리는 설명을, 하권에는 분노의 제단을 꾸미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분비구니갈마법〉 등 43개 경전을 함께 수록했다. 김두재 최윤옥 신성현씨가 역경을 맡았다.〈동국역경원, 값 각1만5천원〉

경전·논서 줄거리 간추린 '도서-사교과도집'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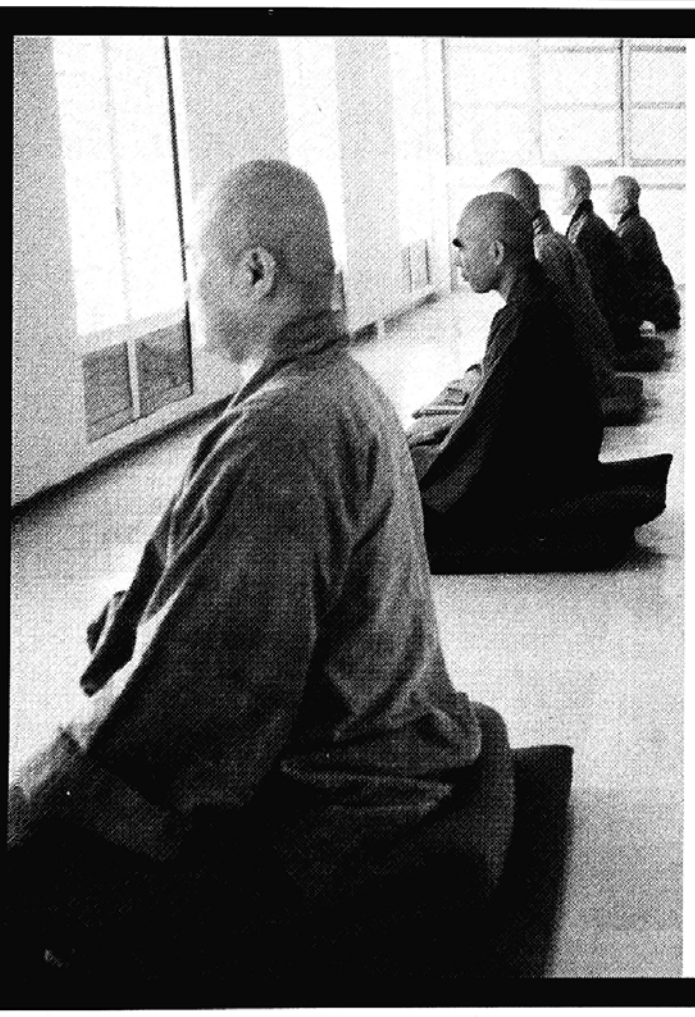
강원에서 학습되고 있는 사교(四敎)를 비롯 〈법화경〉과 사집과목 중 도서(都序)를 묶은 과도집(科圖集)이 나왔다. 과목을 도표로 만들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한 과도는 경전이나 논서의 줄거리를 간추린 약도로 전체 내용의 개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로부터 경전이나 논서의 연찬(硏鑽)에 과도를 이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 시켜왔다. 각 과목의 이름마다 해당하는 경서의 장과 행을 표시하여 제방의 학인과 경학자들이 공부하는데 편리하도록 엮었다.〈은해사 승가대학원,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3	입산	재 연	문학동네
4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5	티베트의 지혜	소갤린포체지음	민 음 사
6	원효(영원한새벽)	남 동 신	새 누 리
7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말씀	석성우·석지현	민 족 사
8	경허 길위의 큰스님	한 중 광	한 길 사
9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불교다라니
10	있는 그대로	다마노미하라쉬	한 문 화

구입문의:(02)737-0695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은 논리와 변증을 극도로 싫어한다. 상징과 역설로 비틀다가 성에 안 차면 직접 행동으로 나선다. 코를 비틀고 발등을 찧으며, 몽둥이 세례를 주고 손가락을 자른다.

그 동안 선(禪)을 지나치게 교(敎)의 〈혁신〉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선은 교(敎)의 〈연장〉이기도 하다. 선의 혁명은 소승에서 대승에 이르는 난만한 교학의 발전 그 정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을 놓치면 선의 활발발한 거래를 정당하게 읽을 수 없다. 이 글은 선이 〈언어를 버리기까지〉의 고민과 배경을 살피고, 그 불가해한 언설에 담긴 이론과 맥락을 탐색해 나간다.

선의 문헌은 역설적이게도 방대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수행자들의 실지 수련을 위해 간명하게 정리한 화두(話頭)집인 『무문관(無門關)』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는다. 『무문관』은 선의 궁극적인 화두, 즉 "너는 누구냐"라는 실존적 물음에 대한 선의 전형적 접근을 담고 있다.

『무문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이 아니다. 학인들을 위해 독자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들을 끌어모아 엮은 것일 뿐이다. 그 편집의 체제를 존중하여 강의 또한 굳이 역사와 사승의 선후를 정리하지 않았고, 또 선의 정신에 입각해 해설 또한 단평과 감상을 주조로 했다. 이런 두서없는(?) 강의에 불편해 할 사람들, 즉 선을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군데군데 장문의 해설을 끼워 넣었다. 이들을 기축으로 나머지 강의를 참고하면 선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은 〈번역〉과 〈해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 모두 근대교육을 받은 세대들을 위한 온전한 현대어역이다. 필자 자신 한문을 외국어로 익힌 한글세대로서 당연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